安 “반대파 호남 고립시켜” 반통합파 “햇볕정책 계승 발전”

분당 앞둔 국민의당 통합파-반대파 호남 구애 경쟁

반통합파 개혁신당 추진위 목포서 창당 전남결의대회
박주선 등 중립파 의원 5명 마지막 중재…행동 통일 결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둘러싼 극한 갈등으로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에 처한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국민의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열렬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호남 민심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경우 통합을 하거나 신당을 만들더라도 ‘모래성’ 수준에 불과해 한 순간에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당 소속 의원 중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인사가 23명으로 절반을 넘는 만큼 이들을 최대한 많이 합류시켜야 지역 민심을 설득하는 것이 그만큼 용이해진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광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안철수 대표는 24일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반통합파는 호남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호남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정신이 지킨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P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호남 민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바라고 있다”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호남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대표는 통합에 반발하는 호남 중진들을 겨냥, “반대하는 분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이용하고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호남에서 돌아온 뒤 곧장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남과 호남정신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창당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파에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맞서 반통합파는 호남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창당추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신당의 당명인 ‘민주평화당’(약칭 민평당)에도 호남 계승을 강조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호남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이끌었던 평화민주당(평민당)과 거의 유사한 당명으로, 사실상 햇볕정책 등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반통합파는 전날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공동으로 광주를 방문한 것에 맞서 25일 호남을 방문,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

반통합파인 개혁신당추진위는 25일 오후 목포해양대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민생과 평화, 민주, 개혁의 한 길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결의대회에 앞서 추진위 조배숙 대표는 이날 “호남민들께서 명령하신 다당제의 정착, 영남패권의 정치양극화 극복,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에 앞장서는 개혁신당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중립파로 분류되는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 대표를 만나 ‘2·4 임시 전당대회 이전 조기 사퇴’를 다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돌아가서 상의를 좀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은 안 대표에 대한 마지막 중재 시도로, 안 대표가 이를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중립파가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 행동통일을 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면담 후 ‘안 대표가 사퇴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보장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걸 보장할 수는 없다. 전대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취임이후 첫 생일…지지자들 다양한 축하 이벤트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인 24일 지지자들은 다양한 생일 축하 이벤트를 마련했고, 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정각에 ‘평화올림픽’을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자는 이벤트를 벌이기로 했다.

이벤트 시각은 오전 10시부터지만 아침 일찍부터 ‘평화올림픽’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번이 66번째 생일인 점에 착안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6천600원’을 릴레이 후원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는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 역사에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걸렸다. 또 미국 뉴욕 맨하튼의 타임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 영상이 두 차례 나가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되어 많은 분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니 두 번 다시없을 특별한 생일이 됐습니다”라며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입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년전 투자했다면 돈방석에 앉았을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213) 비트 코인

비트 코인 등 암호 화폐라고 하는 가상화폐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거래소 폐지와 거래실명제 등 가상화폐 투기 근절 규제 방침에 비트 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는 뉴스는 “도대체 비트 코인이 무엇이길래?”하면서 관심 갖게 한다. 아무리 신문을 열독해도 가상화폐 개념은 잘 모르겠고,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 마침 비트 코인에 투자했다는 후배를 만났는데 투자를 권유했던 몇 개월 전 열띤 분위기와 달리 “안보이거든 한강에 간 줄 알라”고 하소연한다.

2016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였던 호주출신의 니콜라스 망간(1979~)의 전시 작품 ‘성장의 한계’는 비트 코인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서기 1,000년경에 생긴 미크로네시아 야프(Yap)섬의 돌로 만든 공식 화폐 ‘라이(Rai)’의 이야기로 시작해 글로벌 암호화폐인 비트 코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탐구하는 작품이었지만 당시에는 가상화폐 개념이 낯설어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비디오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라이 화폐를 보여주고, 대형 디지털 프린터에서는 일정량의 비트 코인이 채굴될 때마다 길게 이어진 롤 페이퍼 위에 돌 모양의 동전 이미지가 새로 인쇄되었다. 프린트에 들어가는 잉크나 종이, 비트 코인 채굴 장비 가동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 비용도 암호화폐의 가치에 더해진다고 한다. 작가는 물질적인 부의 추상적인 시스템을 시각적인 화폐와 가치로 탐구하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환경적 자취와 노동력을 이미지화했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망간 작 ‘성장의 한계’

지금 와 생각하니, 3년 전 오로지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비트 코인의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알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처럼 투자에 열 올렸다면 돈방석에 앉았을까? 이래저래 비트 코인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진다.

〈광주비엔날레광주폴리부장·미술사박사〉

정계개편 관망만 하던 민주당 태도 바뀌나

협치 고리 새판짜기 움직임
‘민평당’에 일차적 우호 손짓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촉발되는 정계개편을 바라보는 여권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에 한걸음 물러서 일단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국민의당 분당을 포함해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치권의 화학적 분화에 가속도가 붙으며, 여권에서도 ‘협치’를 고리로 한 새 판짜기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당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기류 변화가 한층 뚜렷하게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동에서 국회에서 일상적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 의원들의 발언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다”며 “협치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여권의 협치 행보에 한층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량권을 준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중도를 기반으로 보수층까지 아우르려는 중도통합 신당이 등장한다면 국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합리적 보수 진영까지 포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통합신당보다는 상대적 개혁 성향을 띠고 있는 통합 반대 진영의 ‘민주평화당’을 일차적 우호 세력으로 확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평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통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권에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기보다 정책공조 등의 형식을 취해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며 장기적으로 거리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통합 반대 진영의 신당이 과연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안공항 출발]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품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품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 합니다.[2/14(수)~2/20(화)]
[품격] 북 큐 슈 998,000원~
[품격] 야마구치 998,000원~
아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품 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돗토리(12:20) / 돗토리(13:00)→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품격] 678,000원~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품격] 828,000원~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품격] 돗 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준특급호텔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 ·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